

영원으로 향하는 길

강현숙/성가병원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지 구상의 모든 생물이 탄생해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순리이다. 하지만 그 순리를 받아들이기란 두렵고 너무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두렵고 힘든 일을 겪어야만 하는 이들이 그들의 남은 여생을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들 앞에 처한 죽음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여 좀 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된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신 분들 중에는 본인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곧 치료되어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런 아쉬움을 뒤로한 채 병상 생활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상태를 알고는 있지만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분, 차라리 고통받으며 생명을 부지해 가느니 빨리 죽기를 바라는 분 등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은 제각기 다르다. 어떤 상황이든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과 주위 가족들에게는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로서 이들을 옆에서 돌보아야 하는 입장에선 나로서는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과 동정으로 슬픔이 먼저 앞서게 되고 고도의 기술을 자랑하는 현대 의학의 한계와 인간의 무기력함에 위축되고 만다.

1997년 10월쯤 병세로 인해 눈에 띄게 마르고 유난히 큰 눈을 가지신 50세 중반의 한 남자분이 대장암이라는 진단명 아래 성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통증 조절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입원을 하셨다. 친척분이 미국에 사셨기 때문에 대장암 수술을 그곳에서 여러 차례 받으셨지만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통증과 전반적인 허약감으로 힘들어 하셨다. 입원 당시 본인의 진단명과 예후를 모두 알고 계셨고 나름대로 본인의 예후에 적응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분이셨다.

Fentanyl patchy로 통증을 조절하고 계셨는데 진통제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증상에 매우 민감하셔서 양조절시 본인과 의논해 주기를 원하셨고, 날로 악화되어 가는 병세에도 여유로움과 침착성을 잃지 않으시려는 노력이, 보는 이로 하여금 슬픔을 자아내게 하였다. 본인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증에 대한 고통과 암 말기시 나타나는 복수, 식욕부진, 악액질, 하지 부종, 손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허약감, 변비 등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해를 못하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모습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라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음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병마와 싸우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

계에 대한 두려움과 혼자만 처한 상황에 대한 외로움은 그분을 흔들리게 하고 나약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죽음은 삶의 한 부분으로 시기만 다를 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형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죽음을 앞둔 분들께 자신의 죽음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암 말기 때 나타나는 합병증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환자 본인이 그 고통을 다 받고 계신 모습은 아무리 emotional care가 중요하지만 그것조차 그분께 성가심이 될까 봐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었는데 이런 심정은 호스피스 간호를 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그분은 11월 말쯤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이분 외에도 29세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망각의 강을 건너야만 했던 한 젊은 여자분, 한창 무서울 것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23세의 나이에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청년, 갓 태어나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좋아해 보기도 전에 병마로 고통만 받다가 하늘나라로 가야만 했던 천사들...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고 목을 매이게 하는 슬픔이 다가옴을 느낀다.

죽음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순리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계속 죽음을 비판적이고 슬픈 일로만 받아들인다면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로서 호스피스 대상자를 돌보는 데 지나친 감성주의에 빠져 오히려 그분들을 힘들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죽음을 겸허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여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 같다.

인도의 랍비 작가가 쓴 「죽음의 예술」이라는 책 내용 중 한 부분을 옮겨 볼까 한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고, 삶의 확장이고, 삶의 절정이고, 삶의 피날레인 것이다. 일단 삶과 삶의 과정을 깨닫게 되면, 인간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에 대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내 마음만큼이나 두서없이 글을 쓴 것 같아 부끄럽고 새삼 이제까지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싶다.